

창표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5010-4614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VOL. **118**
2026/10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2027년
카렌다 제작
021 5040 4614 /15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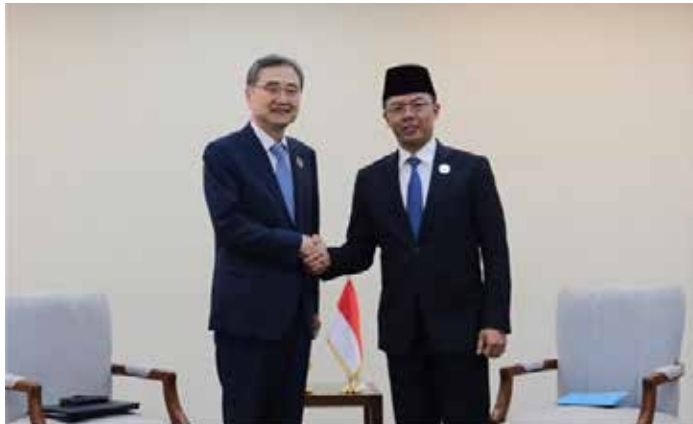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STRUCTION IN INDONESIA

“인니 해양 인프라 선점” 대형 조선사부터 기자재 기업까지 현지 실사 전개

한국 기업들, 조선소 투자와 기술 협력 위해 현지 방문
양국 정부, 인도네시아 조선소 개발 및 관련 투자 최우선 과제로 지정



▲조현 외교부 장관과 수기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7월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사진=인도네시아 외교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방산·조선·원전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조선소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우선 추진한다. 양국 정부가 해양·조선 산업의 공동 도약을 위해 인도네시아 내 조선소 개발 및 관련 투자를 최우선 협력 과제로 지정하면서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의 현지 조선소·공공기관 방문 등 실질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인도네시아 탐사보도 전문매체 템포(Tempo)에 따르면 여러 한국 기업들은 조선소 투자와 기술 협력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국내 주요 대형 조선사를 비롯해 중소·중견 기자재 기업들까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현지를 찾은 것이다.

엄태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정무담당 참사관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네트워크(IKJN) 워크숍에서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한국에는 HD한국조선해

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최고의 조선회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엄 참사관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군도 국가가 인력 양성을 포함해

조선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해운·조선 수요를 결합해 양국 간 실질적 상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조선 산업에서 우리의 전문성과 인도네시아의 수요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조선소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 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4월 프라

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특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맞춰 외교·안보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방산, 조선, 문화창조 산업 등 신성장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한 선박 수출을 넘어 현지 조선업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전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조현 외교장관은 당시 “인도네시아 조선업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 조선업계의 인도네시아 조선소 투자는 새로운 동남아시아 거점 확보와 기자재 수출 확대 기회이자, 인도네시아에 고용 창출과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

을 동시에 안겨줄 ‘윈-윈(Win-Win)’ 기회로 평가받는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풍부한 건조 실적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및 해양 기관들과 초대형 조선소 건조, 수리 조선소 개발, 친환경 선박 기술 고도화 등 다각적인 투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인도네시아와 해외 용접공 양성과 현장 투입,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FSRU) 건조 협력 등 인력 및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화오션은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9년에 수주했지만 계약 발효의 조건인 선주 측의 신용장 발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한화오션은 1400톤급(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을 1조1620억원에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인도네시아와 조선 인력 수급과 현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THE GURU

韓, 인도네시아 첫 원전 사업에 ‘러브콜’ …美·러와 수주전

2032년 500MW 첫 가동 목표…26기 무사고 운영 강점
4월 정상회담 후속 공조…美 뉴스케일·러 로사톰과 경쟁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겨냥해 투자 의사를 공식 타진하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2032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인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원전 운영 경험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력을 앞세워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니 현지 매체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엄태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참사관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언론인 워크숍에서 “인니가 원자력 발전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내보였다.

엄 참사관은 국내 26기 원전의 무사고 운영 기록과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출 실적을 강조하며 차세대 SMR 기술력 역시 주요 협력 카드로 제시했다.

인니 정부는 석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탈피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적용하는 전력공급 사업계획(RUPTL)에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니 대통령도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지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청와대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유튜브채널 갈무리)

난 4월 서울에서 열린 한·인니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원전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시장 선점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치열하다. 현재 미국은 뉴스케일을 앞세워 일본과 함께

서칼리만탄 지역에서 SMR 개발을 위한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부유식 해상 원전 카드를 제시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비 조달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회적 합의가 최종 결정의 관건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인니 투자액만 8억8000만 달러(약 1조 2052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프라보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수립된 양국의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판 삼아 동남아 첫 원전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THE GURU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대우건설, 베트남 · 인도네시아서 원전 · 에너지 사업 보폭 넓힌다



▲지난 7월 9일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토도투아 파사리부 차관 등 주요 정부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사진 가운데 왼쪽 방향으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토도투아 파사리부(Todotua Pasaribu) 투자 · 다운스트림부 차관, 안디 마울라나(Andi Maulana) 투자서비스국 국장, 리코 루스툼비(Rico Rustombi) 투자 · 다운스트림 산업부장관 특별보좌관).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원전 · 에너지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76년 에콰도르 진출 이후 50년간 축적한 해외 사업 경험에 정원주 회장의 현지 네트워크를 더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전략 시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신규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에너지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LNG 발전 인프라,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연계한 융복합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베트남서 원전 · LNG 사업 기회 모색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8일 방한한 부 다이 탕(Vu Dai Thang) 베트남 하노이 시장과 만나 현지 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에서 30여년간 축적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레이크 신도시 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신도시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 다이 탕 시장은 스타레이크 사업 부지의 토지 보상과 정부

기관 이전 등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 의사를 밝히고 향후 도시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방한한 레 마잉 흥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닌투언 원전을 비롯한 베트남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LNG 터미널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 방안이 논의됐다.

대우건설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신규 원전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처럼 사업 기간이 길고 정부 · 발주처와의 협력이 중요한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활동도 병행한다.

베트남은 대우건설이 장기간 사업 경험을 쌓아온 해외시장 가운데 하나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 등을 수행하며 구축한 현지 사업 기반을 에너지 · 인프라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서 SMR · LNG · AI 데이터센터 연계

인도네시아에서는 에너지 인프라와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1986년 인도네시

아에 진출한 이후 약 40년간 7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누적 사업 규모는 약 5억4000만 달러다.

정 회장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현지 정 · 관계 인사와 주요 개발사 관계자들을 만나 에너지와 도시개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SMR과 LNG 터미널 · 발전소 등 발전 인프라에 기가와트(GW)급 시 데이터센터를 연계하는 ‘올인원(All-in-One) 융복합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 공급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발전과 데이터센터 개발을 하나의 사업 구조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5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

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현지 사업 확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프라보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 ·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행사에서 시나르마스 랜드(Sinarmas Land),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BSD 신도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인도네시아에서 신도시 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베트남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주요 전략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원전 넘어 SMR · 원전 해체까지 확대

또한 대우건설의 해외 에너지 사업도 대형 원전 중심에서 점차 범위를 넓히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신규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SMR과 원전 해체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LNG 플랜트와 발전 인프라 등 기존 에너지 사업에 AI 데이터 센터를 결합하는 방식도 새로운 사업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 발전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연계해 사업 범위를 넓혀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사업 거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형 원전부터 SMR, 원전 해체에 이르는 원자력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LNG 플랜트 등 에너지 인프라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연계한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폐기물 발전소로 CO2 감축 도전

인도네시아의 정부계 투자회사 BPI 다난타라는 서자바주 보고르현에서 보고르 도시권 제1 폐기물 발전소를 착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총투자액은 2조 8000억 루피아(약 245억 엔)이다. 중국의 Zhejiang Weiming Environment Protection(浙江偉明環保)이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하며, 2028년 중반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한다.

보고르현 가루가 마을에 하루 최대 1500톤의 쓰레기 처리 능력을 갖춘 폐기물 발전소를 건설한다. 연간 50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발전소를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연간 약 64만 톤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1200명의 고용 창출을 전망하



▲[사진=BPI 다난타라 제공]

고 있고, 부지 내에는 근대적인 폐기물 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 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착공에 맞춰 국영전력 PLN과 전력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보고

르 도시권 제1 폐기물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을 규정한 1킬로와트시(kWh)당 0.20미국의 달러(약 31엔)로 PLN의 송전망에 공급한다.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한결같은 안전운송을 자랑하는 프로젝트 물류 전문업체(Since 1993)

업무안내

- 수출입 화물 통관 및 해상, 항공 운송
- 프로젝트 특별허가 최근 수행 (PIBB, MASTER LIST, SKB PPN)
- 프로젝트 카고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및 통관 (중고장비 포함)
- LCT/BARGE TRANSPORTATION

중요수행 프로젝트

- Lotte Chemical LINE Project
- Grati CCPP Power Plant Project
- Rajamandala Hydroelectric Power Plant Project
- INAS Asahimas Chemical Project
- Suban & Sumpal (Phase 1&2) Gas Project
- Bosowa Cement Project

주 소 :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H.R Rasuna Said
Kav. 8-9 Kuningan Jakarta 12950 - INDONESIA

이 메 일 : project@hanindo.net 홈페이지 : www.hanindoexpress.com

전 화 : +62-21-2525-123 (Hunting) Fax : +62-21-2520-551/556

HP : +62-81-848-5570 (Mr. Cho) Hp : +62-811-816-0627 (Mr. Shin)

인니 바탐 경제, 투자 주도 확장에 힘입어 7.28% 성장... 국가 성장률 상회



▲2026년 2분기 바탐의 7.28% 경제 성장률은 산업, 투자, 물류 및 서비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BP 바탐은 투자 실현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사진=BP Batam)

인도네시아 바탐(Batam)의 경제는 2026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28% 성장했다. 이는 제조업과 투자가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인도네시아 전체와 리아우 제도의 성장률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8일 전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데이터에 따르면, 바탐의 성장세는 리아우 제도의 6.99%보다 높았으며 인도네시아 국가 성장률 5.29%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바탐은 수마트라 지역 전체의 평균 성장률인 5.06%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 지역 경제 활동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임을 입증했다.

이번 수치는 제조업, 무역, 서비스, 투자를 경제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바탐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및 투자 허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싱가포르와의 지리적 인접성, 산업 인프라, 그리고 자유무역지대(FTZ)로서의 역할은 바탐이 지역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거점이 되는 데 기여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 유지 바탐 개발청(BP Batam, 이하 BP 바탐)의 암사까르 아흐마드 청장

은 이번 성장 수치가 긍정적인 신호인 동시에, 경제 확장이 더 폭넓은 혜택으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이 얼마나 질적으로 향상되고 그 혜택을 지역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BP 바탐은 인프라, 공공 서비스,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확실히성과 기업 경영의 편의성을 높여 성장 동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표는 투자자들에게 바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업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장을 더 넓은 기회로 전환

한편, BP 바탐의 리 클라우드아 찬드라 부청장은 경제 활동의 강화가 주민들을 위한 더 폭넓은 고용 및 사업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이 더 많은 고용과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바탐 경제가 확장됨에 따라 주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깨끗한 물, 교통, 폐기물 관리 및 기타 도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에 발

맞춘 인프라도 확장되어야 한다. 바탐이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 발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투자 약속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BP 바탐의 투자 담당 부청장인 파리 제미 프란치스는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투자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 생산, 그리고 고용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 약속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투자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는 생산으로 이어져야 하며, 생산을 통해 바탐을 위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P바탐은 수십 년간 바탐 경제를 지탱해 온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첨단 제조업, 디지털 산업 및 데이터 센터, 에너지, 물류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실성,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 가용 부지 및 유틸리티 확보, 그리고 산업 수요에 발맞출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급성장을 넘어 경쟁력 있는 지역 허브로

바탐이 직면한 과제는 이제 단순한 고성장 달성에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투자가 생산 역량과 고용, 그리고 고부가가치 경제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다면, 최근의 이러한 확장세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나아가 아시아 경제 전반을 잇는 산업 관문으로서 바탐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 파인건설, 36조원 인도네시아 인프라시장 정조준

3조원 규모 토목 · 전기공사 수주 확정...

국내 건설사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인도네시아 이어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등 동남아 SOC 사업 공동 공략



▲투자협약식에서 파인건설 이광수 대표, 최두환 회장,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 윤종혁 회장

지이코노미 정길중 기자 |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와 파인건설그룹이 36조원 규모 인도네시아 할랄푸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발판으로 동남아 대형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는 3일 서울 파인건설 본사에서 파인건설그룹과 동남아 인프라 사업 및 글로벌 수주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해외 자원 · 에너지 네트워크와 국내 건설사의 토목 · 전기 · 플랜트 시공 역량을 결합해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첫 협력 사업인 인도네시아 할랄푸드 산업단지는 약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사업 규모는 36조원에 달한다.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는 상 · 하수도시설 등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토목 · 전기공사 수주를 확정했으며, 파인건설과 벽산종합토건이 현장 시공을 맡

는다.

3사는 인도네시아 사업을 시작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사업을 확대한다.

베트남 북남고속철도를 비롯한 대형 교통 · SOC 사업 공동 참여와 함께 회도류 · 핵심광물 · 탄소포집 분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두환 파인건설 · 벽산종합토건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동남아 시장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현지 파트너십과 국내 건설 기술력을 결합한 장기적인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건설사의 시공 경쟁력과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해 대형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는 전략적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네시아 대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 추가 수주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지이코노미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ASEIC, 한-인니 순환경제 협력 확대… 한국 폐기물 중소기업 5곳 현지 진출 가능성 모색

자카르타서 ‘폐기물을 가치로’ 세미나 개최…
인도네시아 폐기물 정책·기술 수요 공유
리코·리피드·에이트테크·에코인에너지·제이에스티 참여…
수거·선별·재활용·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소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가 인도네시아 폐기물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술 교류와 현지 협력 확대에 나섰다.

ASEIC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폐기물을 가치로: 함께 그리는 한-인니 순환경제의 미래(From Waste to Value: Building a Circular Future for Korea and Indonesia)’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현지 중소기업의 에코인노베이션 역량을 높이는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친환경 기술 교류 및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Ministry of MSMEs, KUMKM)와 ASEIC이 공동 주관했다. 인도네시아 폐기물 분야 중소기업을 비롯해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지 폐기물 산업의 과제와 기술 수요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폐기물 관리 동향부터 인도네시아의 정책과 산업 현황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글로벌 폐기물 관리 동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시사점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로드맵과 기술 수요 ▲인도네시아 폐기물 분야 지원 정책과 중소기업의 기회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 및 성과와 중소기업 지원 혜택 ▲국내 중소기업 우수기술 사례 소개 ▲한-인니 폐기물 기술 협력 증진 방안 패널



▲ASEIC, 한-인니 순환경제 협력 확대…한국 폐기물 중소기업 5곳 현지 진출 가능성 모색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함께 현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를 파악하는 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할애됐다. 국내 친환경 기술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산업계의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ASEIC은 앞서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폐기물 분야의 친환경 기술 수요와 현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후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친환경 기술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적용하거나 시장 진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 세미나는 그 과정에서 확인된 현지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내 폐기물 분야 기업 5곳도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주)리코, (주)리피드, (주)에이트테크, (주)에코인에너지, (주)제이에스티가 자사의 기술과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참여 기업들은 폐기물 수거·운반부터 선별과 재활용, 폐자원 에너지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선보였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특정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순환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현지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차

리였다.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국내 기업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요구되는 폐기물 처리 기술과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ASEIC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폐기물 분야의 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적용 및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 간 기술 및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Green Bridge’ 기업 매칭과 글로벌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확인된 기술 수요를 실제 기업 간 만남과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협력 거점인 GIIC(Global Green Innovation Center)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친환경 중소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 및 기관 간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

침이다.

다만 해외 친환경 기술 시장 진출은 기술 경쟁력만으로 성사되기 어렵다. 현지 폐기물 처리 체계와 관련 규제, 사업 모델, 비용 구조, 정부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파악한 기술 수요가 실제 계약이나 현지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기업 매칭과 실증, 현지 파트너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경제는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제품과 자원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 구조를 의미한다.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기술은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분야로 꼽힌다.

ASEIC은 ASEM 회원국 간 친환경 기술 협력과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이다.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기업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Green Bridge’ 기업 매칭과 GIIC 네트워크를 통한 후속 협력이 실제 기술 이전과 공동 사업, 현지 시장 진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 순환경제 분야 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스타트업엔

전기연합회, 인니 3개 전력기관과 업무협약 기술기준·송전망·EV충전설비·기능인력양성 등 협력

전기산업연합회(회장 김동철)가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송전전기원 등 기능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연합회는 지난 1~5일 현지에서 열린 국제 전기전력전시회(JIEXPO)에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산하 교육기관인 PLN Pusdiklat과 APPI, PJCI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연합회와 인도네시아 기관들은 앞으로 ▲송전망, EV충전시설 등 전기설비 기준 정보 ▲송전전기원 등 핵심 기능인력 양성 ▲



▲연합회와 인도네시아 전력기관 관계자들이 세미나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회]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엔 현지에서 기술교류 세미나도 함께 열어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연합회는 지난 4월 법정단체로 재출범한 이후 전기산업실태조사,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지원 기능뿐 아니라,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와 협약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전력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유관기관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BEST
SELLER**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7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7년(丁未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5010 4614 / 15
pt.kwang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5권부터 가능



한전KDN, 인도네시아 PLN IP와 업무협약...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협력 약속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협력 확대
공동사업 발굴 · 인재양성 협력 방안 모색

한전KDN은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인 PLN IP와 16일 전남 광주광역시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본사 17층에서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T PLN IP는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인 PLN의 100% 자회사로 석탄, 가스, 지열, 수력, 태양광 등 다양한 발전설비를 인도네시아 전역에 운용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발전기업 중 하나다.

이번 PLN IP의 방한은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위해 한전KDN과의 업무협약을 포함해 16일부터 3일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BEXCO) 관람 등 양 기관의 기술협력 확대와 사업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현지 조사 협력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인도네시아 누사페니다 신재생 발전소 사업을 위한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양국간 장기적 우호증진과 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박종현 한전KDN 신사업개발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이 최근 진행해 온 양국 간 교류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에너지 협력의 모범



▲한전KDN은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인 PLN IP와 16일 전남광주광역시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본사 17층에서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DN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협약의 체결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 시행될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와 후속 절차에도 PLN Indonesia Power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KDN은 지난 2024년 4월 PLN IP와 인도네시아 대상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같은 해 8월 누사페니다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태양광발전소 구축 현장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한전KDN의 전력 협력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안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ISO 9001 인증
한국TUV2008년 신기술 인증
N&P 취득

ISO 9001 취득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CE 인증마크 취득

RAM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김재훈의 세무상식

인도네시아 세무대리 제도의 새로운 변화 PMK 55/2026과 ‘Pihak Lain’ 세무대리인의 제도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6년 8월 24일 재무부령 PMK No. 55 Tahun 2026(PMK 55/2026)를 시행하였다. 정식 명칭은 Konsultan Pajak dan Pihak Lain yang Bertindak sebagai Kuasa Wajib Pajak, 즉 ‘세무컨설턴트 및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기타인’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기존 세무컨설턴트(Konsultan Pajak) 제도를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명확한 관리체계 밖에 있었던 Pihak Lain, 즉 세무컨설턴트가 아니면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공식적인 자격·등록·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026년 7월 시행된 PMK 44/2026이 ‘누가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를 규정하였다면, PMK 55/2026은 그중 Pihak Lain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떻게 등록하며, 어떤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받는가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세무대리인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Pihak Lain’ PMK 55/2026은 Pihak Lain을 Konsultan Pajak과 가족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Surat Keterangan Terdaftar(SKT)를 취득하고 납세자로부터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무대리인의 구조는 크게 세무컨설턴트(Konsultan Pajak), 등록된 기타 세무대리인(Pihak Lain), 그리고 일정 범위의 가족(Keluarga)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변화는 Pihak Lain이 더 이상 단순히 ‘회사 직원이니까’, 또는 ‘Brevet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외부 납세자의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려면 법령이 정한 역량과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별도의 전문영역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핵심은 SKK와 SKT

PMK 55/2026에서 Pihak Lain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 용어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SKK(Surat Keterangan Kompetensi), 즉 세무 분야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이고, 두 번째는 SKT(Surat Keterangan Terdaftar), 즉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었다는 등록증명이다.

SKK는 세무 분야 역량시험(ujian kompetensi di bidang perpajakan)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KK는 A, B, C의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도 달라진다.

A등급은 기본적으로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되,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P3B)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은 제외된다.

B등급은 일반 개인 및 법인 납세자까지 확대되지만, 외국인 투자법인(PMA), 고정사업장(BUT), 그리고 조세조약 체결국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은 제외된다.

C등급은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개인 및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상당수 한국계 현지법인이 PMA 법인이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단순히 SKT 보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SKT의 등급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급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SKT의 유효기간은 3년

Pihak Lain이 역량시험을 통과하여 SKK를 취득하면 그와 동일한 등급의 SKT가 함께 발급된다. SKT는 DJP(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SKK 역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갱신을 위해서는 만료 전에 ujian penyegaran, 즉 보수·갱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세무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

록 하는 제도로 변경된 것이다. **Brevet만 있으면 세무대리가 가능한 시대의 변화**

이번 제도 변화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과거에는 회사의 세무담당자나 세무법인 직원 등이 Brevet 등 일정한 세무 관련 자격이나 학력을 근거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PMK 44/2026과 PMK 55/2026이 함께 시행되면서 세무대리인의 ‘kompetensi’를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였다.

PMK 44/2026에 따르면 Pihak Lain이 세무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역량은 SKT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PMK 55/2026은 다시 그 SKT를 취득하기 위한 SKK와 역량시험, 등급 및 감독체계를 구체화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Brevet 보유 = 세무대리 자격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법적인 의미의 Kuasa Wajib Pajak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SKT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세무법인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

예를 들어 세무컨설팅 회사 대표가 정식 Konsultan Pajak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고객사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직원의 자격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반면 모든 실무행위를 반드시 세무대리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PMK 44/2026은 정식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Surat Penunjukan, 즉 지정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 행위’와 단순한 ‘서류 제출·수령 등 보조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무컨설팅 회사에서는 누가 고객사의 정식 Kuasa가 될 것인지, 누가 내부 보조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직원 가운데 누구에게 SKK·SKT를 취득하게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인력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Pihak Lain도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PMK 55/2026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Pihak Lain을 단순히 등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DJP는 Pihak Lain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제재에는 **SKT의 정지(pembekuan)**와 **SKT의 취소(pencabutan)**가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제재가 반드시 단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내용에 따라 곧바로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Pihak Lain도 앞으로는 Konsultan Pajak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납세자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전문성과 책임을 부담하는 tax intermediary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맺음말

PMK 55/2026은 인도네시아 세무대리 제도가 한 단계 더 전문화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Konsultan Pajak 중심으로 세무전문가 관리제도가 운영되었다면, 앞으로는 Konsultan Pajak뿐만 아니라 Pihak Lain까지 SKK와 SKT를 기반으로 자격·등급·유효기간·감독 및 제재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게 된다.

세무업무가 Coretax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산화되는 것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의 자격과 책임 역시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훈 대표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세무·회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와 세무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를 단순한 자격증 제도의 변경으로 보기보다는, “누가 납세자를 공식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세무대리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

- PMK No. 55 Tahun 2026
- Konsultan Pajak dan Pihak Lain yang Bertindak sebagai Kuasa Wajib Pajak
- PMK No. 44 Tahun 2026
- Persyaratan untuk Menjadi Kuasa di Bidang Perpajakan dan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Pemenuhan Kewajiban Kuasa di Bidang Perpajakan

※ 본 기고문은 관련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 kimjhoon@bngconsulting.co.kr

[이슈] 인도네시아 산불 및 역내 국경을 넘는 연무 문제

1. 엘니뇨와 가뭄으로 인한 산불 급증

산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후 건조화로 인해 7~8월 들어 산불 및 토지 화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약 18만 2천 헥타르의 산림과 토지가 소실되었으며, 올해 누적 피해 면적은 28만 헥타르를 넘어서 자카르타 면적의 3배 이상에 달한다. 특히 칼리만탄(서칼리만탄, 중앙칼리만탄)과 수마트라, 파푸아 남부 일대에 핫스팟(화재 고온점)이 집중되었다.

2.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으로의 연무 확산

연무(haze)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숲과 이탄지(Peatland) 화재에서 발생한 유독 연기가 바람을 타고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및 말레이 반도 서부,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했다.

연무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로 치솟으면서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 내 100개 이상의 학교가 휴교했고,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 주도인 뽀띠아낙에서도 통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서부칼리만탄 산불 지역을 시찰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공식 대통령 페북 갈무리]

발생률도 급증하고 있다.

3. 정부 진화 작업 및 비판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BNPB)과 환경부는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수십 대의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투입해 물 폭격(Water bombing)과 인공강우(Cloud-seeding)를 진행하고 있

다.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법 화재 단속 및 재난 방재 예산이 감축된 점을 지적하며, 초기에 화재를 잡지 못하고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4. ASEAN 역내 외교 갈등 및 제도적 대응

아세안 기상 전문 센터(ASMC)는 동남아 남부 지역에 대한 연무 경보를 3단계(Level 3)로 격상하며 화재 및 연무 사태가 올해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들은 아세안(ASEAN)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실질적인 단속 조치 및 ‘역내 연무 오염 방지 협정’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498만 달러 농기자재 수출협약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 수출상담회(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27개사로 구성된 ‘케이(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공사는 현지에서 전략세미나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참가기업들은 총 49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남아는 케이(K)-농기자재 수출의 유망시장으로 꼽힌다. 국산 농기자재에 대한 현지 인지도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북미·유럽보다 운송거리가 짧아 비료·농약처럼 물류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농기자재 시장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료·농약 시장이 연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정책에 힘입어 농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식량안보정책 2030’에서 기계화와 디지털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정밀 농업과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공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케이(K)-농기자재의 판로 확장을 지원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국내기업이 현지 시장을 충분히 파악한 뒤 수출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수출상담회에 앞서 참가기업이 현지 정책과 유통구조,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상담 전략에 반영하도록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 등을 초청해 ‘농기자재 전략세미나’를 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농업부 농지·관개시설총국(DitjenPSP) 소속 옥타 프라스토워 라하르조와 인도네시아 고추농업협회(AACI) 회장 압둘 하미드가 연사로 나섰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농업연구개발청(MARDI) 소속 바드릴 하삼 아부 바카르 부국장과 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KOCHAM) 김종화 회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세미나는 참가기업 유형에 맞춰 ‘농기계·시설자재 분과’와 ‘비료·친환경농자재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연사들은 정부 정책과 시장 동향, 현지 유통 채널과 농장 수요 등을 공유했

으며, 참가기업들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주식회사 아성정공 박준혁 대표는 “세미나를 통해 서류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현지 유통구조와 인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바이어의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해 상담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시장개척단은 세미나와 현지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상담회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사전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참가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연결해 맞춤형 상담을 주선했다.

국내기업 27개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바이어 58개사와 1:1 상담을 진행했다. 총 276건, 2,141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498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아미노랩 김기우 대표는 “자사 제품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제품 성분과 효능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가진 것이 큰 성과였다”라며, “협의를 이어가 실제 계약 성사까지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후속 협의를 지원해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미란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기술처장은 “동남아 시장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시장”이라며, “이번 시장개척단을 계기로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를 수출 확대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중도일보

XCMG, 인도네시아에 광산 장비 부품 정비 및 재제조를 위한 첫 해외 기지 착공



▲XCMG Breaks Ground on Its First Overseas Base for Mining Equipment Component Overhaul and Remanufacturing in Indonesia

XCMG가 9월 16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서 XCMG 인도네시아 재제조 센터(XCMG Indonesia Re-manufacturing Center) 착공식을 개최했다. 광산 장비 부품의 정비 및 재제조를 전담하는 XCMG 최초의 해외 기지인 이 프로젝트는 장비의 전체 운영 수명주기를 지원하는 현지화 애프터마켓 서비스 센터 구축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회사의 해외 현지화 전략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이 센터는 핵심 부품의 정비 및 재제조, 지역 부품 창고 운영, 현지 기술 인재 육성, 중고 장비 리퍼비시를 통합하게 된다. 중고 부품 회수 및 검사, 수리 및 재제조, 부품 공급, 현장 서비스 등 주요 공정을 연계해 광산장비의 운영 수명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현지화 애프터마켓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지 고객의 니즈에 맞춰 설계되는 이 센터는 글로벌 재제조 표준과 린(lean)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센터가 가동되면 주요 정비 작업을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어 장비 가동 중단 시간과 서비스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복원된 부품의 성능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역량은 고객이 운영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비 가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XCMG가 장비 공급업체에서 전 수명주기 솔루션 제공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속할 전망이다.

광산 고객사 관계자는 “재제조 센터가 이곳에 들어서면 정비와 예비부품 지원이 더욱 빨라지고,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XCMG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30년이 넘는 XCMG는 장비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현지화 역량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번 착공은 올해 회사가 현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룬 일련의 주요 성과 중 최신 이정표다.

이에 앞서 XCMG는 9월 9~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마이닝 인도네시아 2026(Mining Indonesia 2026)에서 XCMG 인도네시아 파이낸스 컴퍼니(XCMG Indonesia Finance Company, ABC Multi Finance)를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XCMG의 현지 역량은 장비, 기술, 서비스에서 통합 금융 솔루션까지 확대됐다.

올해 초에는 인도네시아 신에너지 제조기지(Indonesia New Energy Manufacturing Base)의 건설을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해 생산과 납품을 현지 시장에 더욱 가깝게 배치했다. 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과 복잡한 작업 조건에 맞게 장비를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둔 인도네시아 연구개발센터(Indonesia R&D Center)를 개소했다.

XCMG는 기존의 연구개발, 제조, 공급, 판매, 서비스 및 금융 역량을 현지 부품 정비와 재제조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광산 및 인프라 부문에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국제 규격 준수
현장 맞춤 설계
편안함 & 안전
신속·안정 공급**



안전화 생산 전문기업
PT. ANJEON WORLD SUKSES

www.crownglobal.id

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인도네시아 한국건설기업과
함께 뛰겠습니다!**

반세기 신발제조 기술력으로 만든 인증 안전화





Kp. Cukanggalih RT. 003/005, Desa Cukanggalih Kec. Curug, Kab. Tangerang
Telp : 0813 1025 1866 / 0822 9929 5106 Email : anjeonworld@gmail.com

美, 인도 · 동남아 태양광에 고율 관세… 한화솔루션 반사이익

인도 126% · 인도네시아 최고 174% 상계관세 최종판정
저가 셀 · 모듈 유입 제동…미국 내 생산기반 갖춘 국내 업체 경쟁환경 개선



미국 정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산 태양광 셀 · 모듈에 고율의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미국 현지 생산기반을 갖춘 한국 태양광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인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하고 상계관세 조사 최종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인도산 태양광 셀의 경우 조사 대상 업체인 문드라 솔라 에너지(Mundra Solar Energy)와 문드라 솔라 PV 등에 126.09%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다. 인도네시아산 역시 고율의 관세가 산정됐다. PT 블루스카이스라 인도네시아에는 173.70%, PT REC솔라 에너지인도네시아와 기타 기업에는 73.20%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산 태양광 셀에 대해서도 고율 상계관세 최종판정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 중대상황이 인정됐다. 중대상황이 최종 인정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관세가 소급 적용될 수 있어 미국 수입업

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번 판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인도 · 동남아산 태양광 셀과 모듈의 가격 상승이다. 미국 태양광 시장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피해 동남아 등에서 생산한 셀과 모듈을 공급하면서 현지 생산업체와 경쟁을 벌여왔다. 이번처럼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에 이르는 상계관세율이 실제 부과될 경우 해당 지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기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안에서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미국 현지 태양광 생산시설을 대규모로 구축한 한화솔루션이 대표적인 수혜 가능 기업으로 꼽힌다. 직접적인 사업 수혜 주체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한화큐셀(Qcells)이다.

한화큐셀은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문으로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뿐 아니라 셀을 포함한 현지 생산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큐셀의 사업 경쟁력 개선 효과는 상당사인 한화솔루션

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다. 인도와 동남아산 저가 제품의 미국 유입이 감소하거나 관세를 반영해 판매가격이 높아질 경우 한화큐셀 미국 현지 공장의 가격경쟁력과 가동률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규제하는 데서 벗어나 중국 기업과 연결된 동남아 공급망까지 무역구제 범위를 넓힐 경우 미국 현지생산 여부가 태양광 업체들의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해온 한화큐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재편이 상대적인 경쟁우위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OCl 등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공급망 재편에 따른 간접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셀 · 모듈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소재 · 발전사업 중심 기업은 수혜 구조가 달라 기업별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정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제품의 대미 수출 증가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무역정책이 저가 수입제품을 차단하고 자국 내 태양광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 상승보다는 미국에 구축한 생산설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 생산기반을 갖춘 한화큐셀이 직접적인 사업 수혜를 받고, 해당 효과가 모회사인 한화솔루션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산 제품은 변수다. 미국 상

무부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일부 대만 업체가 조사기간 미국 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와 동남아산 공급이 위축되더라도 대만 등 다른 지역의 셀 · 모듈이 빈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있어 한국계 업체의 반사이익 규모는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상계관세 조사는 아직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지급 여부와 상계관세율을 최종 판정한 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ITC가 피해를 인정해야 실제 상계관세 명령으로 이어진다.

출처 : PRESS9

SG, 46조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960km 도로사업’ 공략나서

아스콘 전문기업 SG가 약 46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비롯한 현지 대형 도로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 340억 달러(약 46조원) 규모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의 누산타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 조성하고 도로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진행된다.

SG가 파악한 인도네시아 주요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는 트랜스수마트라 고속도로 560킬로미터(km) 구간을 비롯해 자바섬 남부 해안도로 확장 200km 구간, 누산타라 신수도 연결도로 100km 구간, 기타 프로젝트 100km 등 총 960km 규모다.

회사는 이같은 도로 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 ·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합작법인(JV)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친환경 제강슬래그 아스콘인 ‘에코스틸아스콘’을 직접 생산하고 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현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를 활용해 에코스틸아스콘을 생산할 방침이다. 회사는 인도네시아가 골재 채취 제한으로 골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강슬래그를



천연골재 대신 활용하는 기술이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G는 현지 법인과 에코스틸아스콘 생산 및 도로 인프라 사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지 기업의 사업 네트워크와 SG의 아스콘 제조 · 시공 기술을 결합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생산, 현장 적용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G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46조원 규모의 수도 이전으로 대규모 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아스콘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현지 생산체계와 에코스틸아스콘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형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12월 설립된 SG는 제강슬래그를 재활용한 친환경 에코스틸아스콘 제조 및 도로 포장,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건설, 토목, 플랜트

- PT.HESSA

자카르타 0821 1464-1343
-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060-7257
-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 삼한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2988-0418
-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땅그랑 021 5579-8505
- PT.SAMJIN

건축, 주택, 플랜트, 하이테크, EMP방호,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외
자카르타 021 2245-0670
-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증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 PT. SPACE TECHNOLOGY

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
-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IUW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 PT. SSA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 -5736
-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
-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PT.UTAMA JAYA TEKNIK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땅그랑 021 5577 4507~09
-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 PT. TEKNIKO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EPC
땅그랑 0811 995 - 0335
- PT. WOO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 PT.HAECHANG DEVELOPMENT

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 종 패널 공사
땅그랑 021 5568 5408
-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 PT. Muns Cipta Bangun

토목, 철골, 건축, 인테리어
땅그랑 021 5541-747
- PT. BUANA INSKONSI JAYA

Waste Energy Plant, Electrical, HVAC
땅그랑 021 3973-1528
- PT. SUNG HWA PLUS

종합건설업
자카르타 021 4064-2114
- PT. INKO JAYA KONSTRUKSI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
찌까랑 021 8263-1843
- 공단 및 지사
-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40-0025
-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 국가철도공단

자카르타 021 5058-8812
- 건설공제조합

자카르타 021 5290-4042
- 산업인력공단

자카르타 021 7918-6012
- KIND

자카르타 0851 2192-5762
- K 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 021 570 5565
- ENGINEERING
-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 유신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2409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 SAMSUNG C & T Corporation

자카르타 021 2988-0418
-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 Civil, M&E, Treading
땅그랑 021 5578-0702
- PT. P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 PT. F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 PT. JAYA TEKNIK KONSTRUKS(Besar/PMDN)

Engineering & Construction
반튼/세랑 021 5574-1492
- PT. VISION AND YOUNG

전기공사, 자동제어공사, 환경공사
땅그랑 021 2904-7301
- 건축설계 사무소
-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 전기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제일연마

Resinoid Grinding / Precision Grinding
Resin Bonded Wheels Disc
찌까랑 021 8991-1071
-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 정석 테크 아바디

종합전기,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 PT. WOJ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 PT. YUNSUNG INDONESIA

전기&소방
브카시 021 8263-1844
- PT. YI SU ELECTRONICS

Electric Instrument Engineering & Contruction FA System
찌까랑 021 8983-4323
- 건축자재
- LS전선

까라왕 021 3973-3988
- PT.DONGSEO FURNITURE

U-PVC 우든퍼니처 우든 문
까라왕 021 591-5631/37
-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씰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 열연 건자재 공급
필레곤 0813 8039 7748
-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Contruksi Plat Besi,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망고르 021 8794-3838
-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 KORIA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땅그랑 021 5940-0081
-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 PT.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 PT. KUMGANG INTERNATIONAL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5568 5408
- HANSHIN

컴프레사
땅그랑 021 5949-4000
-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툴
찌까랑 021 8990-2723
-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 에스와이패널

PIR, Glass wool, Rock wool, EPS패널
땅그랑 021 3006-7879
-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 PT. 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뵙 0721 780 151, 0721 781 457
-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 PT. HFAI

바닥 페인트, 에폭시
땅그랑 021 551-5218
-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제, 접착제

- 쯔빠라 0291 751-2706
-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 CV.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까시 0811 1929 350
- PT.ARI TECH INDONESIA

공장수질개선, 정수시스템
0815 4655-5680
- PT. KTC MITRA INDONESIA

U-PVC, 알루미늄도어, 창문, 하이샤시
보고르 021 8792-9422
- NEXTIN

LED, Special Lighting
자카르타 021 3104-414
- PT.indobaja

방화문제작, 철재절단, 절곡
땅그랑반튼 021 5935 5882
- ECO INTERNATIONAL

맨홀뚜껑 & 그레이츠
0815 8989 667
- PT. IMGLOBAL [PAPERYARN]

건축자재, LVR, DECO, DELUXE TILE
자카르타 021 2247-6211
- PT. LINEONE INDONESIA

가설건축자재, Scaffolding, Field installation/dismantling
반튼/세랑 0215574-1492
- PT. CKP ABADI

건축자재,페인트
브카시 021 8278-2456
- PT. GEO KWANG ENG

ceiling panel / wastiel cabinet / bathtub
자카르타 0811 2851 4200
- 범양방방 인도네시아

찌까랑 021 3873-5050
- PT. RMAX UTAMA INC (NEXFIL)

건축용 윈도우 필름
자카르타 021 3886 5163
- PT. TAE HANG INDONESIA

Manufactur Pipe, Ventilating Fan, & Ceiling Fan
찌까랑 0811 1183 1129
- PT. CKP ABADI INDONESIA

조광페인트
찌까랑 021 8278 2456
- 설비
- PT. PACIFIC REFUTO SYSTEM

냉동 냉장설비, HVAC 및 AC
땅그랑 021 5947 1029
-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s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필레곤 025 434-0319
-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자카르타 021 2902-2342
-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레, 토레이
땅그랑 021 558-6446
-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땅그랑 021 2901-5282
- PT. ECO international

맨홀(Manhole),그리스트랩
자카르타 021 2782-8878
- PT. SUNG HWA PLUS

Total Fire Protection Solutions
자카르타 021 4064-2114
- PT.OK ELEVATOR INDONESIA

ELEVATOR
자카르타 0852 1778 9098

PT.MJ indotech
공조설비, 소방설비, 건설안전자재
기계설비,
자카르타 0812 1234 9080

PT.KIMS PIPING INDONESIA
플랜트, 배관자재 전문
필레곤 0254 781 8901

PT.ARIM HVAC CSP
반톤 0254 4029 47~49

PT. HOKI JAYA INDONESIA
Building, Factory Maintenance,
HVAC Ducting System
Multizone Air Conditioning
찌까랑 021 2909 3053

포워딩

JASON LOGISTIC INDONESIA
Air Cargo, Sea Cargo, Warehouse,
Customer Service
자카르타 021 4585 5919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TRANSNIA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땅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찌까랑 021 2956 3356/57

ITL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자카르타 021 5011 2120

PT.KGL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56 3356/57

PT.Blueray Indonesia Indonesia
Door To Door 물류회사
자카르타 왓츠앱 +82 10 5259 0757

PT.WIDE Logistics
항공/해상/수출입통관/해외이사
자카르타 0815 1902-4326

인테리어

HDG
Interior, Branding,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7205-007

채움디자인
Design & Build
자카르타 021 8946 9398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2912-4010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JS WON
FURSIS / ILOOM / SIDIZ,
사무용, 가정용 가구
자카르타 021 3014 2889

DESIGN LAB
Architecure & Interior Landscape
자카르타 0811 1350 509

중 장비, 기계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KOTRACK
중장비
자카르타 82 10 8732-2928

PT.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땅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자카르타 0852 8185-5551

NOEL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자카르타 021 5010 3699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자카르타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SnG Solusi Partner 회계컨설팅
세무, 회계 컨설팅
자카르타 0811 8903-455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땅그랑, 찌까랑, 브카시, 스마랑, 자카르타, 보고르외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컴퓨터 윈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인쇄 / 명함 / 카다록

도서출판 광개토
인쇄, 명함, 회사소개서, 카다록,
리플렛등 모든 인쇄
0858 9060 0962 / 021 5010 4614
E mail : pt.kwanggaeto@gmail.com

인력관리, 용역

PT.AGUNG SINAR BUNGKUK
인력파견 관리, 경비, 생산직,사무직등
자카르타 021 8952 7463

PT.Cahaya Research Indonesia
관리직 인력 헤드헌팅, 사무직 물류 소
매인력 파견, IT
자카르타 0813 1509 9567

특수 청소

PT. JAYA JWIA SEMPURTNA
공장 특수청소
찌까랑 0813 1866 2669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사무용 기기

PT.TM FLOWTECH
사무용 기기 렌탈 및 판매
필레곤 0254 849 3536

재인니 한국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SILK ROAD DESIGN

시각 디자인 / 인쇄 디자인 / 광고 디자인 / CI . BI 개발
카렌다 디자인 / PACKAGE DESIGN / BOOK DESIGN
편집 디자인 / 신문, 매거진 편집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인쇄

카다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외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021 3002 9087 021 3002 9091 / 9090
0858 9060 0962



PT. MIRAN METAL INDONESIA

금속 절단, V-컷팅, 절곡 및 기계제작

Steel Door & Frame / Trench & Cover / Gate & Handrail / Ladder



Jl. Raya Serang Km 19, Sukanegara, Cikupa, Tangerang
Tel : 021-38271532, E-mail : pt.miranmetalindonesia@gmail.com



JTCC
JT CONSTRUCTION CHEMICALS

최고의 단열 솔루션

폴리우레탄 FOAM 단열 시스템

POLYURETHANE FOAM INSULATION SYSTEM

Smart Insulation, Stronger Building
효율적인 단열로 에너지 절감과 건축물 보호를 동시에!

JTCC 폴리우레탄 FOAM의 장점

- ▶ 탁월한 단열 성능 | High Performance Insulation, 에너지 효율 향상 & 비용 절감
- ▶ 우수한 방수 & 기밀성 | Waterproof & Airtight 습기 차단으로 구조물 보호
- ▶ 친환경 & 안전 | Eco-friendly & Safe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
- ▶ 빠른 시공 & 높은 효율 | Fast & Efficient 신기술 시공으로 공기 단축 및 생산성 향상

- ▶ Adhesive and Sealant
- ▶ Protective Coating
- ▶ Roofing
- ▶ Waterproofing
- ▶ Structural Strengthening
- ▶ Reputing Patching, Grouting
- ▶ Injection
- ▶ Spray Machine and Equipment



Jl. Swadaya 2 No. 114
RT 032/RW01
Kec. Mustika Jaya,
Kel. Mustika Sari,
Bekasi, 17157



Telp. : (021)
82740458



Website :
www.jt-jtcc.com



marketing@jt-jtcc.com

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4,778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달성

중소기업 15개사와 자카르타·찌레본·필레곤 등 주요 거점 순회
‘KOMIPO FACTORY’ 등 현지 인프라 활용해 실질적 판로 개척 지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9월 13~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찌레본, 필레곤에서 협력 중소기업 15개사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다수의 발전사업을 운영하며 탄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 이를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현지 세 곳의 거점을 돌며 맞춤형 활동을 펼쳤다. 필레곤에선

2025년 3월 준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거점인 ‘KOMIPO FACTORY’를 활용해 기술 교류회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롯데케미칼, 크라카타우포스코에너지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주요 수요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인근 산업단지 14개사 관계자 51명이 참여해 협력기업 제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찌레본에선 찌레본 1·2호기 파견자 및 현지 직원 등 관계자 30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하며 후속 협력 기회를 발굴했다. 또 남동·서부·동서발전 등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발전공기업 법인장들을



▲인도네시아 필레곤에서 현지 바이어 초청 행사 진행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발전공기업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자카르타에선 현지 바이어 21개사 관계자 40명을 초청해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총 166건, 4778

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참여기업 중 에코파워텍은 화재 확산 방지 보온재 공급을 위해 현지 기업인 HFS와 20만5,000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에쓰엔은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그룹 계열사인 PLN S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실적을 냈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한 협력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엔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현지 수요처와 직접 만나 사업 기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담 결과를 실제 수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인도네시아에 구축한 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협력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수요처와의 접점을 넓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부발전은 이번 상담의 후속 계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발전공기업 5사 공동 시장개척단 파견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에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



INDONESIA OFFICIAL DISTRIBUTOR

경원기계공업(주) 인도네시아 직영대리점

KYUNGWON AIR COMPRESSOR — OFFICIAL GENERAL DISTRIBUTOR FOR INDONESIA

에어 컴프레서



(한국본사) 인니직영대리점 인증서

30+

30년간 축적된
압축공기 기술력



100%

정품부품
인니전지역 A/S가능



이 광 선 TEL 0812 100 77732
김 병 남 TEL 0852 8834 7666



WEBSITE
kwcompressor.id